

‘바보상자’서 필수품으로...TV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19세기 문화의 상상 속 첫 등장
광고와 문학, 영화 통해 발달
정치적 메시지·마케팅 수단으로
TV 기술문화·역사 이면 조명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텔레비전의 즐거움

크리스 호록스 지음, 강경이 옮김

은 시간에 먼 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말로도 대체될 수 있다.

책의 저자인 크리스 호록스는 텔레비전이 하는 일 가운데 큰 부분은 이미지를 생산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우는 일이라고 했다. “전원이 켜지면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은 텔레비전이라는 사물로부터 벗어나 화면을 통해 다른 곳으로 실려 간다. 텔레비전은 여는 인공물과는 다른 차원에 있는 사물이다. 존재와 부재 사이에 머물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요술 상자’이다. 이미지를 생산해 우리에게 실어 나르고, 정작 그 이미지를 보는 우리는 이미지에 이끌려 어딘가로 이동하니 말이다. 이처럼 텔레비전은 세상과 분리돼 있으면서도 세상 속에 굳건한 뿌리를 두고 있다.

저자는 텔레비전의 기원을 19세기 심령론과 제국주의, 빅토리아 시대 자기장 실험에서 찾는다. 또한 이 즈음 활동했던 소설가 에드워드 로빈슨, 제임스 페인 등의 과학소설에서 하나의 소재로 사용했다고



2013년 중국 후난성 주저우 들뜬에 재활용을 위해 쌓아놓은 브라운관 텔레비전들.

〈루아크 제공〉

본다. 그러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사이에 기술의 향상으로 텔레비전의 구성 요소들이 자리를 잡았다. 물론 텔레비전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데는 각국 발명가들의 노고도 자리했다. 특히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텔레비전은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도 활용됐다.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알튀세르 식으로 논하자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도구”였던 셈이다. 이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시대를 거치면서 텔레비전은 마케팅의 주요 수단이 되기도 했다.

저자는 텔레비전의 부정적인 측면도 들여다본다. 보는 이의 생각을 통제하고 감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백남준, 볼프 포스텔 같은 아티스트들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모터보로 현대문화에 대한 비평을 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사물로서의 텔레비전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상을 언급한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영상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소멸해가는 텔레비전과 이를 거부하는 텔레비전이 합쳐루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텔레비전의 가치와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

“수많은 시기를 거치며 텔레비전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동시에 욕망하는 대상, 무시하는 동시에 환영하는 대상, 쳐다보는 동시에 그 너머를 보는 대상이었다.”
〈루아크·1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임성순 지음 ‘우로보로스’

새로운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독특한 상상력으로 독자들을 놀라게 하는 작가 임성순이 이번에는 SF소설을 들고 나왔다. 2010년 장편 ‘건설턴트’로 세계문학상을 받으며 문단에 데뷔했던 작가는 그동안 ‘문근영은 위험해’, ‘극해’, ‘자기 개발의 정석’ 등의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소설 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작품 ‘우로보로스’는 인공지능 시대의 묵시록을 담고 있다. 작품 제목이기도 한 ‘우로보로스’는 ‘꼬리를 삼키는 자’라는 뜻으로 연금술에서 꼬리를 먹는 뱀, 혹은 용의 문양을 가리키는 말이다. 영원함, 완전성, 불사를 상징하기도 하는 이 단어는 인간 심성의 원형적 상징으로 생각되기도 하고 개인과 우주의 자아 발생 이전 상태를 의미하는 존재의 새벽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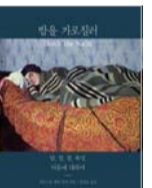
작가는 고도의 지적 능력을 지닌 강인공지능이 인간의 삶과 공존하는 세상에 초점을 맞춘다.

감정노동 수행 능력은 인간보다 로봇이 더 우수하고 젊은이들은 암울한 현실보다 풍요로운 가상세계에서 더 강력한 리얼리티를 느낀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속화돼 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이 출현하는 시점, 다시 말해 인간과 인공지능이 각각의 방식으로 소멸과 육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지옥일까. 아니면 불행한 천국일까.

소설은 각각의 장이 연결돼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한다. 물론 그 자체로 완결성을 지니기도 한다. 구성과 형식이 ‘우로보로스’의 형식을 담고 있는데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소설을 유영하며 없는 경계를 탐색하는 일은 경계가 사라진 미래 세대에 대한 탐험으로 읽혀진다.
〈민음사·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에른스트 페터 피셔 지음, 전대호 옮김 ‘밤을 가로질러’

밤의 의미를 깊이 사색하는 인문 교양 도서다. 독일의 유명한 과학사가인 에른스트 페터 피셔가 지은 ‘밤을 가로질러’는 철학적이면서도 과학적으로 밤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준다. 책은 우리를 밤의 세계로 안내하기 위해 과학, 문학, 역사, 철학을 가로지른다.



밤의 여러 모습과 삶의 어두운 면을 다층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저자가 주목한 주제는 어둠, 그림자, 우주, 잠, 꿈, 사랑, 욕망, 악이다. ‘밤이란 무엇인가’, ‘우주는 왜 검은가’, ‘우리는 왜 잠을 자는가’, ‘꿈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악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 밤을 둘러싼 굵직굵직한 질문들을 하나씩 짚어간다.

또 삶이 어떻게 밤을 통해 가치를 얻는지를 우려한 문제로 보여준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과학, 문학, 역사에 새겨진 밤의 흔적, 밤의 욕망, 밤의 아름다움, 밤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다. 밤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저 먼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현대 도시에 나타난 ‘밤의 종말’까지 다룬다.

자연과학 속의 밤도 흥미롭게 다뤄지는 부분 중 하나다. 과학자적으로 열정, 흥분, 들뜸, 꿈에 의해 창조적인 영감을 얻는 과학자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과학자로는 생물학자 프랑수아 자코브와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를 꼽을 수 있다. 지은이는 “밤 과학 없이는 위대한 과학이 발전할 수 없다”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낮 과학이 아니라 열정적이고 직관적인 ‘밤 과학’을 부드럽게 증명한다.

책은 ‘빛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둠이 있어야 하고, 인간은 낮과 밤, 모두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맺는다. ‘삶은 밤을 통해 가치를 얻는다.’
〈해나무·1만60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잭 와이너스미스 지음, 광영직 옮김 ‘이상한 미래 연구소’

전 세계 7000만 명의 괴짜들을 사로잡은 미국 웹 코믹 블로그 ‘SMBC’의 작가인 잭 와이너스미스가 기생충을 연구하는 아내 켈리와 함께 쓴 책이다. 만화가와 과학자 부부가 자신들만의 ‘근거 있는’ 상상력을 한껏 발휘해 책을 만들었다.



책 와이너스미스 특유의 유쾌한 만화와 유머러스한 글이 어우러져 과학책임에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상한 미래 연구소’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삶을 더욱 근사하게 만들어줄 미래 과학 기술을 10가지 선별해 소개하고 있다. 지은이 부부는 “세계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책을 쓸 결심을 했다. 우주에서부터 지구로, 물질로, 마침내 인간에게까지 이어질 변화를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이 책의 미래 이야기는 우리가 미래과학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 우주에서부터 시작한다. 책은 과학자들이 우주여행의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한다.

또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인 ‘우주 엘리베이터’ 연구에 대해 상세히 다룬다. 말하자면 우주에 커다란 물덩이를 올려두고 거기에 밧줄을 묶어 엘리베이터가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다. 비현실적으로 들리겠지만 지은이는 밧줄을 무엇으로 만들지만 결정하면 의외로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밖에 핵융합 발전, 로봇 건축, 증강 현실, 합성 생명체, 정밀의학, 바이오 프린팅 등을 다룬다.
〈시공사·2만50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